

퍼펙트 스톰과 자본의 대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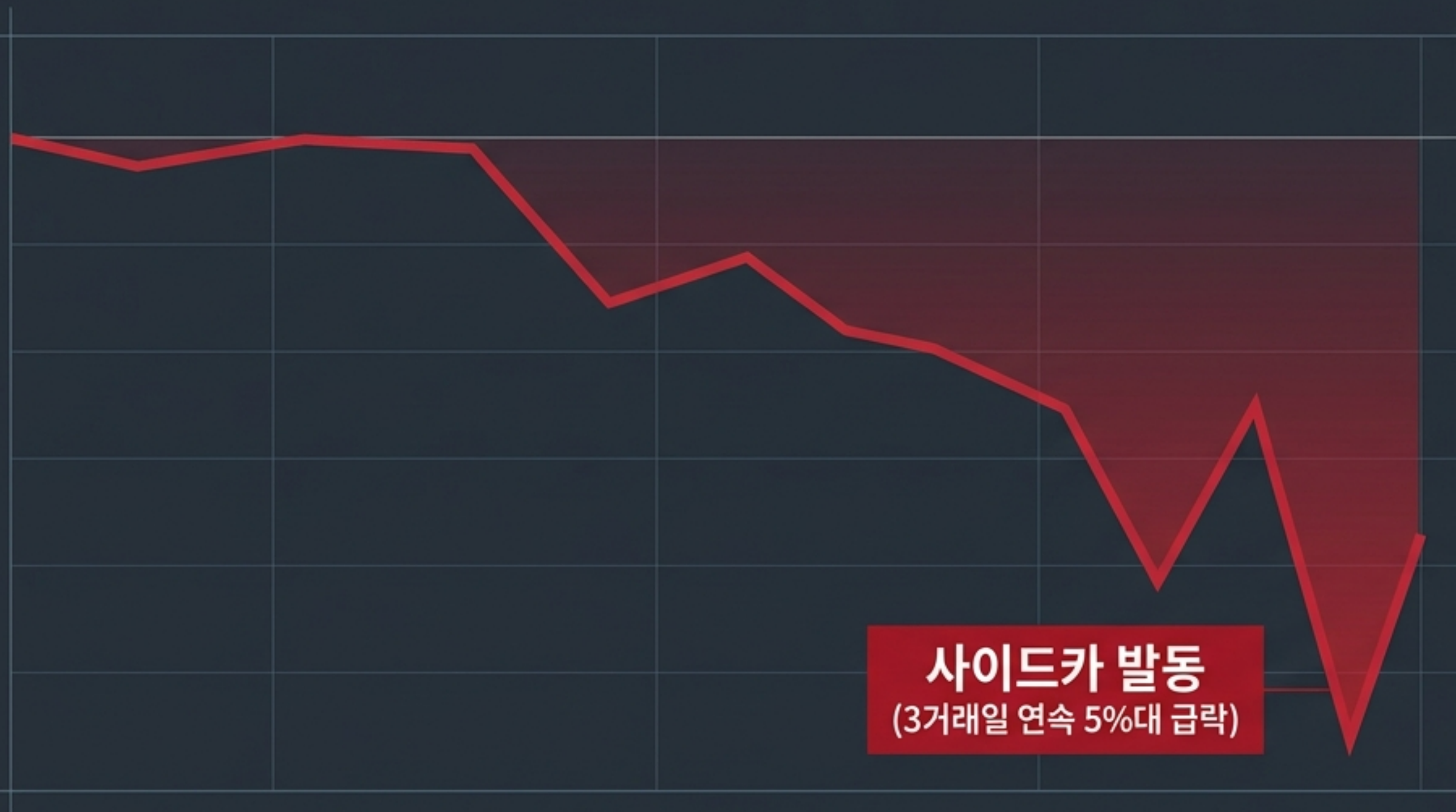
2026년 7월 8일 글로벌 매크로·마켓 전술 대시보드

[DATE] 2026-07-08 22:01 KST
[STATUS] 시장 변동성 극대화 (사이드카 발동)
[FOCUS] 반도체 투심 위축, 증동 지정학적 리스크, 글로벌 섹터 로테이션

KOSPI 5%대 폭락 및 매도 사이드카 발동

[KOSPI]
7,246.79
-409.52pt, -5.35% ↓

[KOSDAQ]
785.00
-46.23pt, -5.56% ↓



[Investor Flow]

외국인 301.5만 주 순매도

개인 203.2만 주 순매수

기관 97.1만 주 순매수
(장 막판 3,000억 원 매도 전환)

핵심 기술주 및 시총 상위주 연쇄 타격

삼성전자

-6.25%

277,500원
시가총액: 1622.3조

SK하이닉스

-5.68%

2,076,000원
시가총액: 1479.6조

삼성SDI

-7.42%

412,000원
시가총액: 33.2조

LG에너지솔루션

-4.97%

315,500원
시가총액: 73.8조

삼성바이오로직스

-4.15%

1,363,000원
시가총액: 63.1조

POSCO홀딩스

-3.65%

304,000원
시가총액: 24.1조

현대차

-3.55%

462,500원
시가총액: 94.7조

NAVER

-2.28%

192,700원
시가총액: 30.2조

기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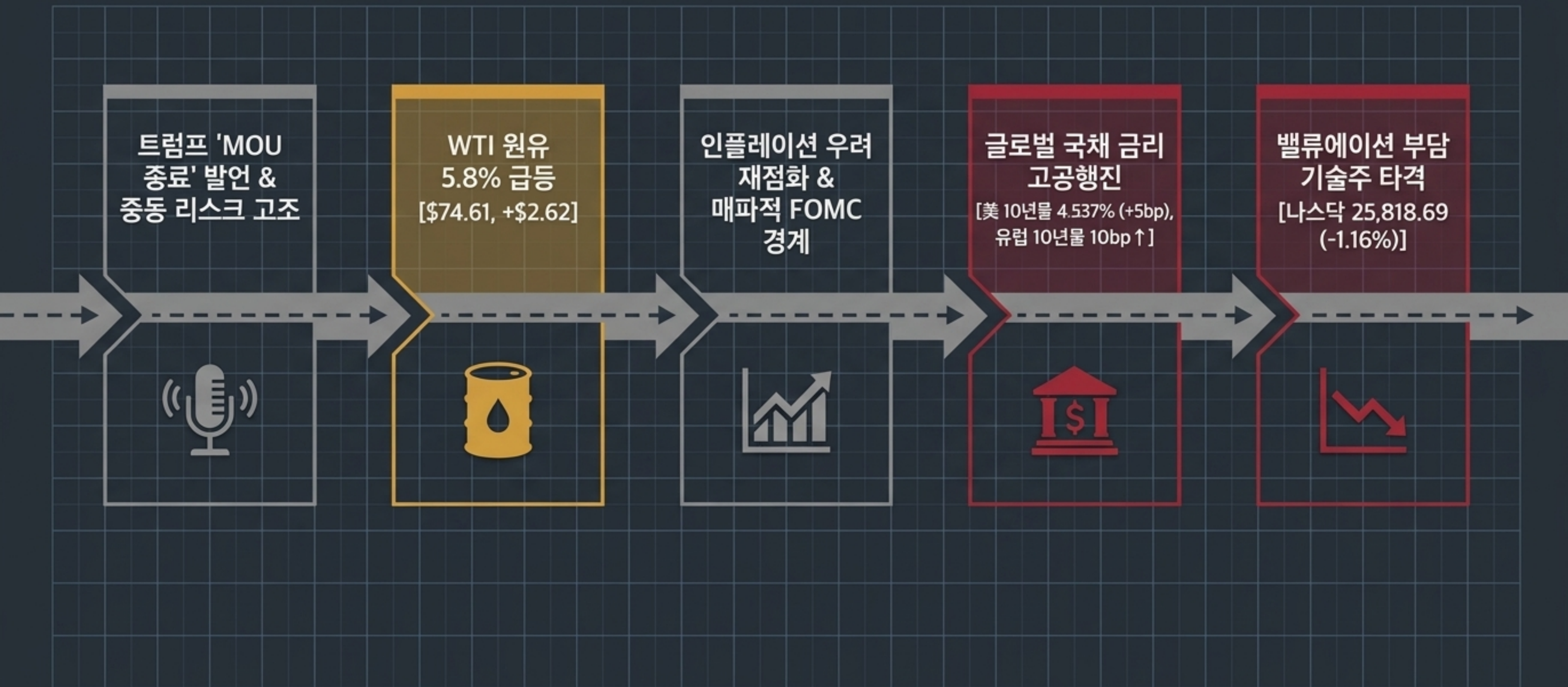
+2.02%

156,800원
시가총액: 61.2조 (방어 성공)

시장을 뒤흔친 두 개의 거대한 지각판 (Two Macro Forces)



전술적 연쇄 반응 메커니즘 (The Chain Reac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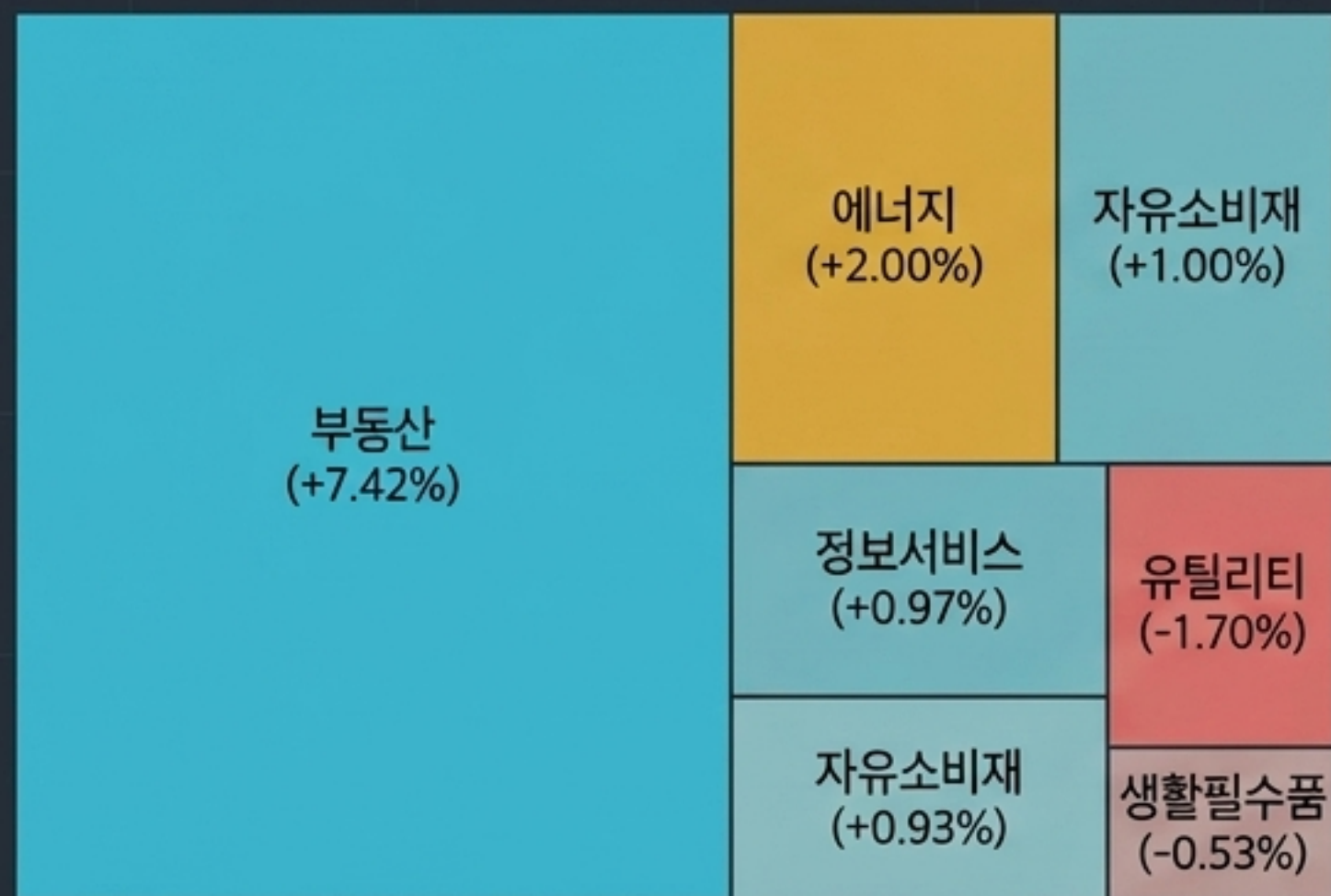


글로벌 섹터 로테이션 히트맵: 디버전스(Divergence)의 심화

한국 증시 - 전방위 투매



미국 증시 - 선별적 자본 유입



한국 증시는 투매에 가까운 전방위 하락을 겪은 반면, 미국은 부동산 및 에너지 섹터로의 명확한 자본 순환매(Rotation) 발생.

글로벌 증시 파편화 (Global Market Fragment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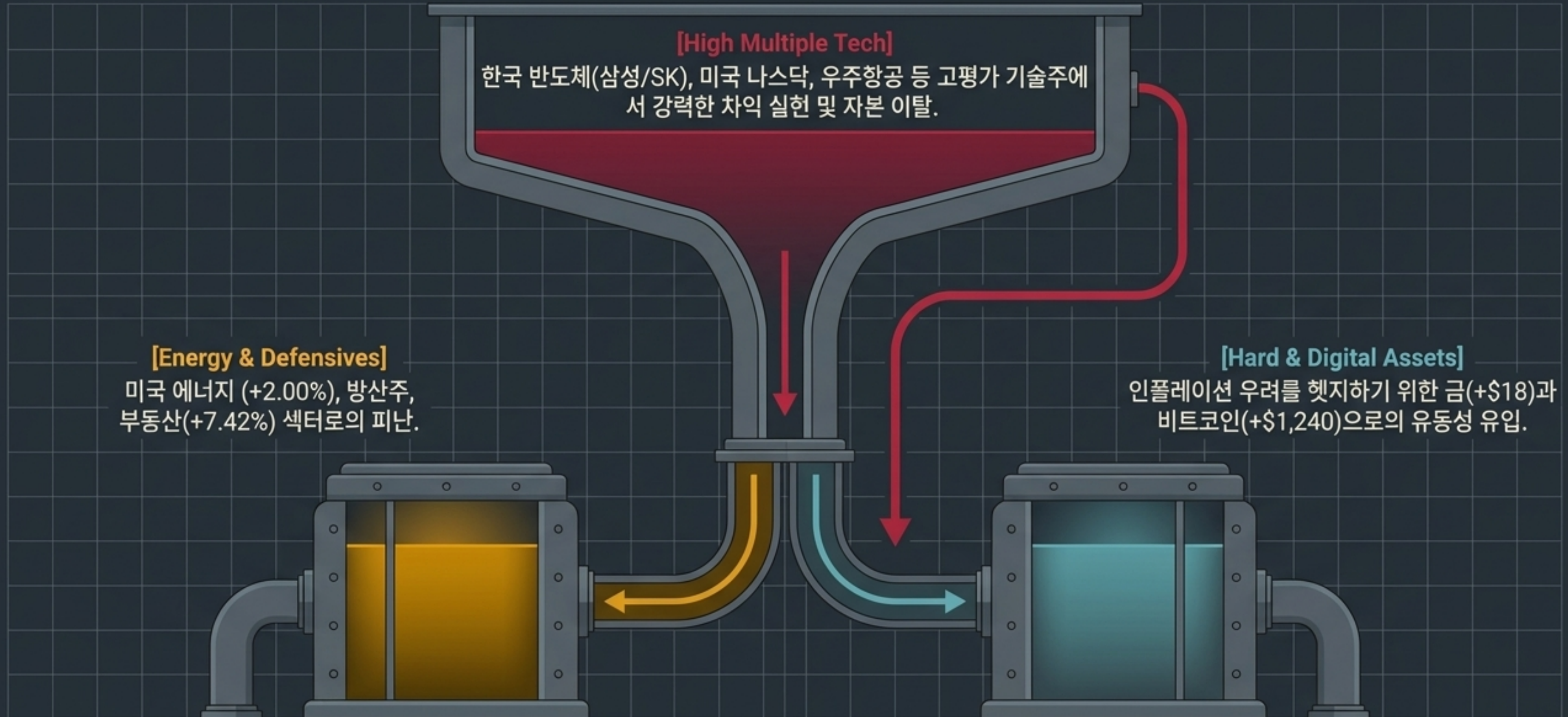


AI 칩 매도 심화와 유가 급등이 글로벌 증시 전반의 조정 국면을 강제하는 가운데,
자원/방산 등 특정 모멘텀을 보유한 국가만 선별적 방어 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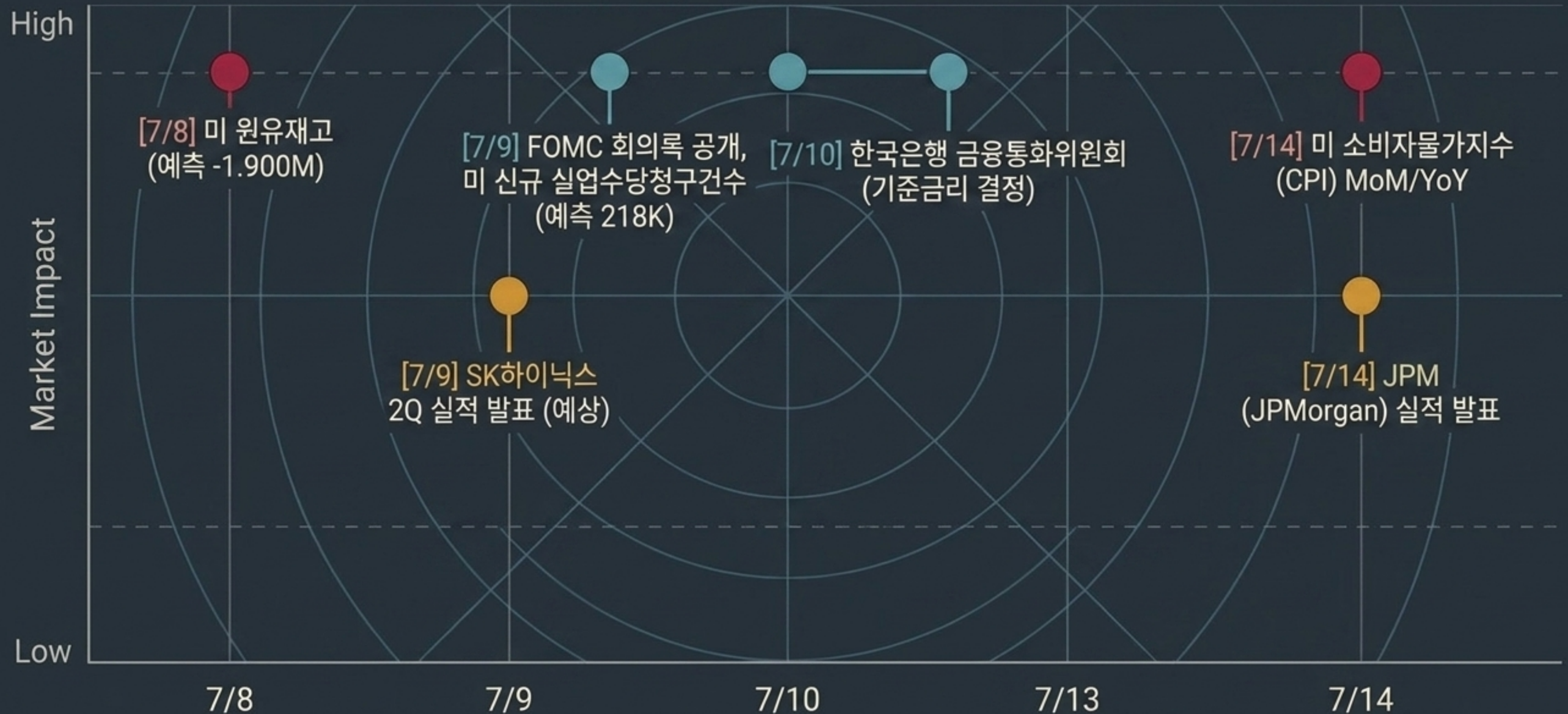
자산군 진단 매트릭스 (Asset Class Diagnostic Matrix)

Equities (위험회피)	FICC (달러 약세 & 인플레이 압력)	Crypto (디지털 안전자산)
[S&P 500] 7,503.85 (0.00%) — 서비스주 강세로 보합	[미 국채 10Y] 4.537% (+5bp) ↑ FOMC 매파 기조	[비트코인] \$500 (+\$1,240) ↑ ETF 순유입 지속에 따른 급등
[KOSPI] 7,246.79 (-5.35%) ↓ 반도체 약세·기관/외인 이탈	[WTI 원유] \$74.61 (+\$2.62) ↑ 중동 불안 및 감산 기대	
	[달러인덱스] 0.2 (-0.32) ↓ 유로 강세 연동	
	[원/달러] 1,445.00원 (-5.30) ↓ 달러 약세 연동	
	[금] \$500 (+\$18) ↑ 안전자산 선호 지속	

자본 도피와 순환매 (The Flight to Quality & Rotation)



전술 레이다: 주간 핵심 매크로 이벤트 (Weekly Risk Map)



결론 및 포트폴리오 전술 지침 (Tactical Positioning)



[기술주 회피]

나스닥 및 반도체 투심이 급격히
냉각 중. KOSPI 5% 급락

상황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이 있을
수 있으나, 외국인 매도세 지속
여부 확인 필수. 기관의 저가 매수
(막판 매도 전환 유의) 모니터링.



[에너지 및 서비스 주목]

중동 리스크와 유가 상승 압력이
당분간 지속될 전망.

미국 증시에서 입증된 것처럼
에너지, 서비스, 부동산 등 밸류에
이션 부담이 적거나 지정학적 수
혜를 받는 방어형 섹터 비중 확대



[현금 확보 및 대체 자산]

10년물 국채 금리 고공행진과
달러 약세의 복합 작용 중.

포트폴리오 변동성 제어를 위해
금,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 헷지
비율을 높이고 충분한 현금성
자산 확보 권장.